



‘갯벌 단풍’ 칠면초에 물든 순천만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전남 순천만이 14일 붉은 보라색 칠면초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순천만 칠면초는 10월 초부터 붉게 피어나 순천만 갯벌에 용단을 깔아 놓은 듯 그 빛깔이 곱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연 매출 3400억원 ‘광주마사회’ 30억 주차장 요구엔 ‘마이동풍’

계림동 화상경마장 골목길 하루 600여대 불법주차 시민 불편...동구, 주민 세금으로 건립 추진

광주시 동구가 화상경마로 인해 주말이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계림동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이하 광주마사회) 인근에 수십억원을 들여 공용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합법적 도박장을 운영하며 매년 3600억원 가량의 마권을 판매하는 광주마사회는 동구의 주차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계림8구역 일대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 부지로 확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해 동구가 계획했던 예산으로는 주차장을 건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14일 동구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모두 30억원(국비 15억·시비 7.5억·구비 7.5억)을 들여 계림동 광주마사회 인근에 70~80면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동구는 오는 10월까지 부지를 확정짓고, 올해 내에 토지 보상 협의를 거친 뒤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마사회 인근 계림동 주민들은 “지난 2000년 광주마사회가 들어선 이후 경마가 열리는 금, 토, 일요일이면 골목과 도로변에 주차되는 외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실제 동구가 지난해 12월 ‘도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마가 열리는 날 1일 방문객이 3090명, 1일 방문차량은 1100대에 이르고, 인근 골목길과 도로변 주차차량은 평균 601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그동안 원인을 제공하는 광주마사회와 해마다 170억~180억원의 세금을 받아오는 광주시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 ‘2015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해 주차장 건립 사업을 시작

했다. 이후 동구는 광주마사회와 바로 인근인 계림동 484-6번지 일원(1892㎡)에 80면을 갖춘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 부지 바로 맞은편인 계림8구역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 부지로 확정되면서 땅값이 계획 당시보다 50~70%가량 올라 고민에 빠졌다. 결국 동구는 사실상 30억원의 예산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4월과 5월 각각 7억5000만원과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광주마사회에 보냈다. 지난 8월에는 한국마사회 본사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사회 측은 “이미 362면의 법정 주차면적을 갖추고 있어 당장은 어렵다”는 구두 답변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지원불가 방침을 밝혔다.

동구에 확인한 결과 광주마사회의 지난해 매출(마권 판매액)은 3370억원에 이르

고, 개장 이후 총매출은 3조원을 돌파해 4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마사회가 지난해 광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레저세(총 매출의 10%)의 절반인 168억 5000만원과 지방교육세 67억4000만원이다. 그나마도 레저세의 나머지 절반은 과천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 등에 내고 있다.

동구는 광주마사회 지원이 없더라도 공용주차장 건립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무산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역결과 312면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사실상 70~80면으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 062)605-1114

## 무등산 지왕봉 콘크리트 철거 50년 만에 옛모습 되찾는다

군부대, 12월 초까지 마무리

무등산 지왕봉(해발 1180m)이 50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는다.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가 군사시설 설치와 운용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계단 등을 설치, 훼손한 경관을 오는 12월 까지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전한 옛 모습 그대로 복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14일 “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군부대가 훼손한 주상절리대 등 지왕봉 경관을 복원하는 작업이 12월 초 완공을 목표로 이날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군부대는 지난 1964년부터 하늘로 솟은 주상절리대 돌기둥 사이에 콘크리트를 이용해 석축을 만들었다. 평평해진 바위 위에는 레이더 등 군사시설을 만들고, 장병이 오르기 편하게 콘크리트로 계단도 만들었다.

무등산사무소는 2억2000만원을 들여 주상절리대 틈에 들어간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고 군(軍) 통신시설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계단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3개월에 걸쳐 320에 이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없애는 고된 작업이지만 복원 과정에서 혹시 모를 주



무등산 지왕봉 계단.

상절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정과 망치 등 수작업으로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콘크리트를 깨기 위해 기계 등을 사용하면 진동과 충격으로 돌기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황의수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지왕봉 경관 복원사업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국립공원 정상의 옛 모습을 원형대로 살려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첫 사업”이라며 “늦어도 12월 안에는 지왕봉 복원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승인

쉬운 해고·임금피크 도입 등  
당정, 관련법 내일 당론 발의

노사정이 전남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성공하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남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14일 당정회의를 열어 오는 16일 관련 노동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이날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집 위원 48명 중 30명이 찬성했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앞서 전남 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대하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행 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세요?  
내게 필요한 공유자원을 찾고 계시나요?

이곳에 있습니다!  
공유광주로 오세요.

<http://공유광주.kr>

광주광역시